

“혁신적 마이스산업 선도...광주형 3대 뉴딜 적극 참여”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새해 경영계획 밝혀 “비대면 전시·융복합 통해 사업환경 변화 신속 대응”

“신속년 새해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시 한 번 합심해 마이스(MICE)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중심 디지털, 탄소중립의 그린,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종태(사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6일 “지역과 함께 코로나19를 슬기롭

게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새해 경영계획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600여건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심각한 운영 피해를 겪었다. 올해에도 여전히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하지만 ▲혁신적 MICE 사업 선도 ▲전략적 마케팅 강화 ▲고객중심 상생 경영 ▲지속가능 경영 체계 확립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위기를 돌파하



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혁신적 MICE 사업 선도와 관련,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K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관전시회를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사업구조개혁)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를 기획,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유사 분야의 주관전시회는 융복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 AI 인공지능 산업주간, 한식박람회, 교육박람회, 캠퍼스 전시회 등 신규 MICE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2전시장 건립에 대비, 국제행사와 대형전시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전 마케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다각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 및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카데미 운영 등 인재 양성 및 지역 MICE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준영 경영기획 실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포스트 & 워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천후 MICE 전문 컨벤션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2전시장 건립은 올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전천후 MICE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 전시장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맞춤형 장애인복지로 ‘전남 행복시대’ 연다

도, 2천230억 들여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추진

전남도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과 함께 장애인 자립 및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20억원 증액된 2천230억원을 편성,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장애인들의 안전과 함께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 지원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대상자를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해 단가도 5% 인상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 도비 지원 사업 등이 확대된다. 발달재활 도비 사업의 경우 지난해 350명에서 올해 550명으로 사업 대상이 크게 늘었다.

또한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추진키 위해 서부권과 동부권에 설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로 힘든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차상위 초과자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도 3천명까지 확대되고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이 지원된다.

건강한 장애인의 삶과 공공의료서비스

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시에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건립되며 신장장애인에 대한 혈액·복막 투석비 지원,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내 장애인 생활 시설에 IoT·AI기술을 활용한 장애유형별 ‘디지털 통합돌봄’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구축, 입소 장애인의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이 확대되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별도 설치된다.

손선미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전남에서 희망을 꿈꾸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차주호 세방리튬배터리(주) 대표이사과 평동2차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기차 배터리팩 기업, 광주에 1천150억 투자

세방리튬배터리, 평동산단에 공장 설립...250명 일자리 창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제조 전문기업인 세방리튬배터리(주)가 광주에 1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이 설립되면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국가인증센터를 건설 중에 있어 세방리튬배터리의 혁신 기술들이 더해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세방리튬배터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방리튬배터리는 1천150억원을 투자해 평동2차산업단지 내

2만9천㎡ 부지에 연면적 3만3천㎡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오는 6월까지 준공해 연간 42만대의 배터리 모듈을 생산한다.

세방리튬배터리는 자동차 빌트인카메라의 보조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제작 분야에 신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이번엔 신설하는 광주공장을 해외시장 수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건립되는 공장은 친환경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셀을 모듈화하고 패키징하는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축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조립공장으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세방리튬배터리의 공장 건

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호 세방리튬배터리 대표이사는 “광주시의 산업 인프라와 전문적인 지원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였다”며 “당사의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공장으로 지역기업과 협력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세방리튬배터리의 투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김지사, 복지부·질병청에 ‘희망 도시락’ 전달

코로나19 대처 노고 위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연말연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도시락 400개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와 이어 1월6일엔 질병관리청에 도시락과 고구마빵을 보냈다. (사진) 중앙부처 직원들은 “특별한 식사로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며 “김영록 지사의 세심하고 따뜻한 정에 힘이 났다”고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 ‘희망 도시락’은 나치, 전복, 뚝 등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재료로 만들었다. 해남 고구마빵을 간식으로 함께 지원해 풍성함을 더했다.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온까지 각별하게 신경썼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병실 부족 사태를 지원한 바 있고 사회단체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도시락 300개, 김치 5천500개, 위생용품 3천900개, 마스크 1만개를 지원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전남도, 완화 기준 3월까지 적용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을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단축 등이다.

재산 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는 1억1천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황대 상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 재산도 일상 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김재정기자

왜? 하이롬 전기온풍기인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하이롬에서 제작한 농업용 전기온풍기로, 낮은 연료비와 높은 열효율을 통해 하우스 내부를 작물 성장에 최적의 환경으로 맞춰 다수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필수품, 농업용 전기온풍기입니다.

저렴한 유지비용

70% 이상 저렴한 난방비

편리한 사용

쉬운 세팅 이동·설치 간편

강력한 송풍력

강력한 바람 골고루 따뜻

최적 환경조성

습기 제거 탁월

난방비는 내리고, 온도는 내 맘대로 올리고!

온도는 High, 수명은 Long / 하이~롬 전기온풍기

사용장소		작물별 사용 표준(200평 하우스 3중 보온 기준)				
비닐하우스	축사	밭기, 깻잎	토마토, 호박	오이, 가지	고추	애들망고, 멜론
딸기, 토마토, 메론, 블루베리, 포도, 가지, 고추, 피망, 한라봉, 백합과, 구아바, 호박, 부추, 깻잎, 버섯, 화훼	돼지, 염소, 곤충(귀뚜라미, 굴뚝이, 메뚜기 등), 양계장, 오리농장	6~8°C 유지 9KW 2대	12~14°C 유지 9KW 3대	17~20°C 유지 9KW 4대~5대	18~20°C 유지 12KW 4대	19~22°C 유지 12~15KW 5대

※ 9KW 1대가 3~4°C 온도 상승, 위 기준은 예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저렴한 유지비용

고효율 온풍기

강력한 송풍기

HIROM (주)하이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90

T 1566-2042 F 062-511-8713 H 010-8612-8700

주식회사하이롬은 스마트팜 전문업체입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 농협우자 가능

하이롬은 비닐하우스 농기계 전문회사입니다 검색창에 하이롬 전기온풍기 를 검색하세요!